

# 龍仁文化

1985.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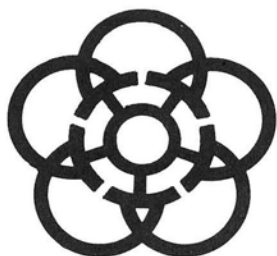
第 5 號



## 龍仁文化院

# 龍仁文化

1985. 12. 30  
第 5 號



龍仁文化院

## 군 민 헌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 목 차

머릿말.....	문화원장.....	5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으며.....	박상돈.....	7
<b>용구문단</b>	〈詩〉 鳶.....	박상돈..... 12
	기 도.....	안재승..... 13
	겨울꽃.....	이길호..... 14
	雁鴨池.....	정태순..... 15
	겨울.....	임준규..... 16
<b>주부백일장장원작</b>	엄마의 가정교육.....	조매자..... 17
아름다운 이 조국을.....	포곡국교 6년 백진.....	19
아름다운 꽃동산.....	신갈국교 6년 이현경.....	21
<b>꽃 꽃 이</b>	첫눈 오는 날.....	오민근..... 24
Photo essay.....	김운항.....	25
<b>학 교 순 려</b>	경희대학교.....	29
	모현중학교.....	32
<b>탐 방 기</b>	사은정.....	조운원..... 35
<b>민 속 놀 이</b>	타맥놀이.....	지도하주성..... 37
<b>옛 문헌속의 용인(3)</b>	용인 지나가는 도중에서 홍순석.....	41
<b>지 명 유 래</b>	방축골.....	이인영..... 44
<b>역 사 의 인 물</b>	의인 윤 섬.....	이인영..... 46
<b>特 輯</b>	할미산성.....	정양화..... 47
<b>사 발 통 문</b>	'85년도 문화원 사업실적.....	61
	'86년도 문화원 특색사업계획.....	62
편 집 후 기.....		63

# 머릿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을축년을 보내며 병인년을 맞으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지난날의 반성과 새해의 설계에 잠기게 됩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그때 그때에 충실했었는가? 또는 충실히 하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미흡함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불만스럽기만 하며 기필코 새해에는 개선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정화운동이 시작될 즈음 말단 소직을 맡아서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체질속에 배어든 여러 가지 부조리 현상을 지금 고치려고 한다면 뼈를 깎는 아픔을 맛보면서 사회정화운동에 가담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여기에 견주어 볼 때 나쁜것을 고치라고 목청만 돋우었지 우리 자신이 솔선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뼈를 깎는 아픔을 자기 스스로가 맛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요구해야 정화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잡혔을 때에만 도둑이지, 잡혔거나 안잡혔거나를 막론하고 도둑질 자체가 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도둑행위 그 자체부터가 도둑임이 분명합니다.

형제간, 친구 사이, 윗 사람과 아랫 사람 사이, 상인과 고객사이, 국민과 정부사이에 서로 불신한다면 그 사회는 불편하기 이를대 없을 것이고 살벌하고 많은 부담과 시간의 낭비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속이며 속고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 충분한 이유와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요구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졌을 때 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포함하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철학이 있어서 인생관을 수립하여 사는 것입니다. 생활철학이나 신념은 아예 접어둔 채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면서 살아간다면 인격적인 수양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발전도 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으로 재임시에 L 씨(후에 부흥부 장관이 되었음)가 대통령 각하와 낚시를 즐기다가 대통령께서 방귀를 소리나게 끼시니까 「각하

---

후련하시겠습니다」라고 아부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이기에 특권계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K 씨가 가서 차표를 사올 수 있으면 C 씨도 가서 차표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K 씨는 되도 C 씨는 안 된다면 분명 K 씨는 특권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며 이로 인해 위화감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문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도록 되어야겠고, 인격을 가르치는 스승이 계신 곳으로 인식을 바꾸어 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눈치만 보는 점수 벌레로 전락시켜서는 아니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단결하는 병인년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해 봅니다.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자기의 조그마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희생이 단체운영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흔히 봅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은 그 단체의 일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려 소외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병인년에는 전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올충년에 생각했던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용구문화 제5권을 펴내면서 투고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편집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미비한 원고를 가지고 완전한 책자로 만들어 주시는 홍익문화인쇄사에도 백배 감사드립니다.

##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며

박 상 돈

하루 하루 일과에 쫓기다 단지 며칠만을 남겨둔 달력의 마지막 장을 대할 때면 문득 느끼는 일이지만 세월은 쉬임없이 잘도 흐른다.

이십대 무렵에는 삼백 예순 다섯날을 한결같이 알차고 보람있는 나날이 될 것을 계획하며 나름대로 각오도 다져보았는데 나이가 더해갈수록 한 해의 막바지에 선 빠저린 감회나 새 해의 다짐이 적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은 세상을 가슴 속에 담아놓고 생각과 행동에 따라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의 앞날에 자신만만하던 그 시절의 패기는 어디로 갔는가? 좀 더 크고, 좀 더 넓으며, 좀 더 높은 것을 향해 질주하던 그 야망은 또 어디로 갔는가?

주위를 돌아보면 언제나 나의 어깨에 시선을 주고 있는 가족과 몇몇의 이웃, 그리고 가슴 한 구석에 작아질대로 작아져 덩그러니 놓여진 마음뿐. 금년 한 해가 과연 나의 계획을 뜻하던 위치에 올려줄 만큼 튼튼한 단계가 될 나날이었을까?

지금의 내 위치가 십 오륙년 전 세월의 저 편에서 자신이 꿈꾸고 갈망하던 그러한 자리일까?

내가 나를 속일 수 없어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 하지만 그 옛날 내 꿈의 설계가 펼쳐지던 생활속의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술한 세월 속을 걸어온 지금의 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일까?

###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른은 어린이에게 흔히 이 다음에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묻는다. 물론 그 물음 속에 그 아이의 야망을 측정하거나 꿈의 크기를 재려는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저 지나가는 말투로 심심풀이적인 경향이 더 많다.

위대한 정치가나 과학자, 훌륭한 교육자, 유명한 예술인, 위엄있는 장군이나 법관.

대개의 어린이들은 저마다의 시선에 멋지게 부각된 인물들을 내세우며 자랑스레 꿈을 펼쳐보이지만 그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러한 질문을 받던 어린이에서 두 아이를 키워가는 어른으로 성장해있다.

나는 내가 어렸을 적 내게 물어오던 어른들과 똑같은 질문을 나의 아이들에게 해도 괜찮을까?

세상이란 언제 느껴도 그렇지만 참으로 오묘한 섭리와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저마다의 구성체는 개별적인 삶을 추구해 가면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와 범주내에서 일률적으로 움직여진 위대한 정치가나 과학자가 또는 훌륭한 교육자나 예술가가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라는 것이 그네들만의 힘으로 형성되거나 존립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 하나의 기능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으로서 활동하기에 한결같이 필요한 것들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 속에 존재해 있는 사람들과 그네들이 가지는 모든 삶의 형태는 귀천과 우위를 논할 수 없다.

우리 신체의 일부 기능을 잃었을 때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부나 묵묵히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연탄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연탄을 날라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흙을 가꾸는 농부가 없다면 인류는 기아에 허덕이어서 하리라. 바람이

우리가 사는 삶은 나 하나의 삶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느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밀접한 관계로 얽혀진 생활이다.

하물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다소 굵은 일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천대받거나 멸시당한다면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그렇다면 나는 나의 아이에게 이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묻기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옳을 게다.

우리는 가끔 한 장의 신문에서 전혀 상상치도 않던 커다란 충격을 받은 한다.

모든 사람의 신망을 받던 어느 정치인의 비위와 어마어마한 부정축재, 한 가정을 지켜야 할 어떤 주부의 엉뚱한 탈선행위.





순수하고 차분히 꿈을 키워가야 할 청소년들의 끔직한 범죄.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훈훈히 적셔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사회의 한쪽에서 얼마든지 피어나기도 한다.

한 평생 과일장사로 모은 피땀어린 거액의 성금을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은 어느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가난으로 수술을 받지 못해 안타까이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치료비를 보내오는 소시민의 숨겨진 온정.

비록 빛나고 멋진 생활이 아닐지라도 주어진 자기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착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은 얼마나 보는 이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것이라.

우리는 무엇이 되든 좋은 것이다.

그 보다는 어떻게 저마다의 삶을 충실히 떳떳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그러한 기풍이 우리 사회에 조성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운 특정정보보다 당당한 범인이 더 높이 평가되는 올바른 눈과 양심을 길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눈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리라.

### 이해하고 양보하는 너그러움으로

天上天下唯我獨存

이 한귀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혹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이 오직 유일한 존재라 풀이하고, 혹자는 불심을 깨달은 석가의 사상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존재함을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찮은 글 솜씨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唯我獨存의 의미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排除)한 혼자만의 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존재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것들과 여건이 있었고 내가 앞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 존재의 가능성을 유발(誘發)하는 나 이외의 모든 것도 내 존재만큼 소중한 것이니 또 하나의 나라 해도 무방하리라.

自他の 구별이 없는 온 우주의 혼연일체.



이것이 곧 唯我인 동시에 大我이고 獨存의 실제적인 의미는 개체로서의 하나가 아닌, 혼연일체된 커다란 하나로서의 존재를 나타냄이니 共存과 상통하는 뜻이라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석가가 불심을 깨달아 비로서 누구에게나 자비로워질 수 있었음은 우주를 커다란 하나의 나로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한다면 나의 지나친 억측일까?

자기 자신 만큼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 만큼 절실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바로 자기 뿐이 없으리니 자기를 혼자만의 편협한 나로(小我)밖에 생각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사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한 사회를 통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회에 공익을 줄 것이며 한 나라를 통해 자기를 내다 볼 줄 아는 자는 그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되는 작은 다툼이나 시비,

그로 인해 조성되는 불화나 갈등.

이러한 모든 번뇌들은 나를 하나의 작은 나로밖에 보지 못하는 소치(所致)의 당연한 인과이다.

대아(大我)를 각(覺)한 자는 나를 이해받지 못함에 구애없이 남을 이해하며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즐거움으로 알아 기꺼이 희생마저 불사한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이나 극락의 유무를 나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지만 구태여 불확실한 내세나 저승의 세계에까지 가서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우리가 나를 좀 더 넓은 大我로 보는데서 얻어지는 너그러움.

그 아량이 이해하고 양보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케 해준다면 이 사회가 바로 천당이요 극락일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크고 무한하지만 내면의 정신 세계는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감동하고 고마워진다.

사람의 마음을 정령 흡족하게 해줄 수 있고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것은 막대한 황금이나 높은 지위 또는 명예도 아니요 오직 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마음 뿐이다.

근심스러운 부, 고독한 지위, 떳떳치 못한 명예.

이들 보다는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이라.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복지사회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질만이 풍요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가꾸어야 하리라.

天上天下唯我獨存

내가 남을 이해하고 양보함은 바로 나를 이해하고 양보함ियो 내가 남을 사랑함은 곧 나를 사랑함이니 이해하고 양보하며 사랑함으로 이해와 양보와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요 천당이며 극락은 아닐런지?

### 새해의 소망

다시 나를 돌아본다.

지금 여기의 나는 과연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인가를.....

비록 옛날의 포부대로 영위되어진 생활이 아니요, 젊은 시절의 꿈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일지라도 지금의 나는 결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옛날의 허왕스러움을 모두 벗어 버리고 진실하게 남아있는 알맹이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나라 한다면 지나친 자기 합리화일까?

어쨌든 나는 평범하지만 선량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는 생활인인 것이다.

이제 새 해를 맞으며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小我를 위한 삶이 아니라 大我를 위한 삶으로 묵묵히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善을 행해 나가는 것 뿐.

善이란 남이 몰라주어도 좋은 것.

선을 행함으로 자신에게 느껴지는 즐거움과 보람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보상 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의 몸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저마다의 능력에 알맞은 짐을 선택해 져야하며 타인의 생활을 부러워하기보다 자기의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하리라.

나의 길은 남이 대신해서 걸어줄 수 없는 것.

정상은 하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외길이 아니다.

다가오는 새해엔 좀 더 확고한 나를 가꿀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수양을 쌓으리라.

자부와 긍지를 지니되 오만하지 않고 착하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으며 나만을 위한 내가 아니라 모든 존재속에 아무런 부작용없이 순화되어 커다란 하나의 나로 성숙하기 위해서.....



# — 기 도 —

안 재 승

주님이시여!

이 땅에 제가 있기에

아름다운 대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저의 육신을 무명의 천한 옷으로

가리워도

늘 빛나는 정기를 심게 하소서.

오! 나의 주여.

미움의 동산에도

용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량의 미덕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천주여!

당신보다는 인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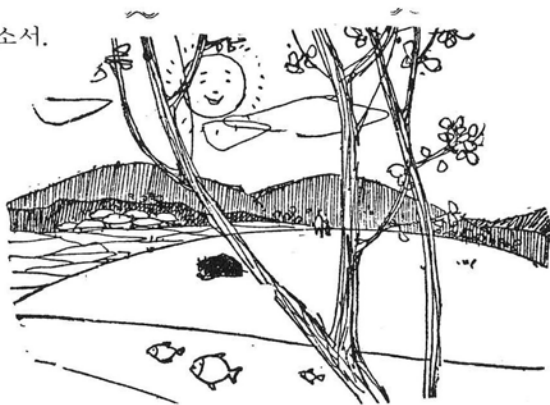
그리하여 나의 무덤에도

민들레가 피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이땅에 제가 있기에

아름다운 대지가 되게 하소서.



## 겨울꽃 (雪)

이 길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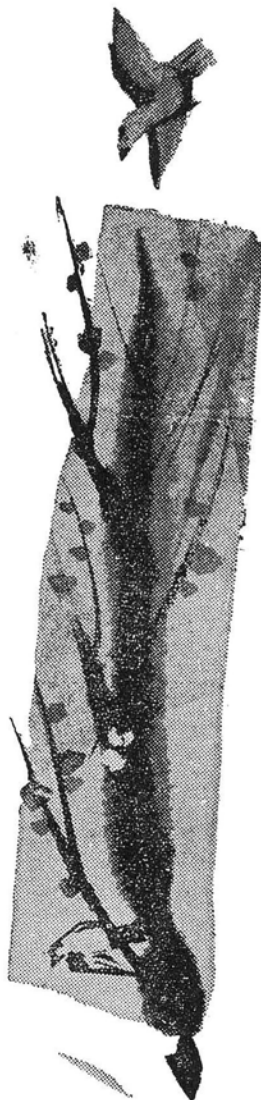
혼자 떠난  
겨울 길목에서  
군상들은 침묵을 지킨다  
잘난 척도  
질투도 없는  
오직  
여유와 너그로움의 침묵만이  
겨울꽃은 친구되어 찾아오고  
아이들은  
모두다 문밖으로 나와  
뛰고, 춤추고  
긴 침묵을 깨뜨리며  
새로운 약속을 한다  
더 많은 침묵을  
더 많은 여유를  
더 많은 너그로움을.



# 雁 鴨 池

鄭 泰 順

내게  
주어진 시간은  
9월의 아침  
그러나  
저녁처럼 어두워라  
  
뿌리는 빗줄기  
연잎위에서 난무하고  
이미  
잃어버린 神의 시대를 기리나니  
  
내  
여기에 무등을 타고  
흐려진 못 물과  
비바람속에 스민  
향훈을 마시며  
  
지나버린 날의 덧없음을  
나무와  
대지와  
하늘과  
같이  
울고 있다.







## 엄마의 가정교육

조 매 자

라디오를 들으며 열심히 뜨개질을 하는 나에게, 벽에 걸린 액자를 가르키며 엄마! 저게 무슨 글씨예요? 하고 묻는다. 응, 그건 “성실”이란다.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인 병호는 한자로 된 글씨를 알리가 없다. “성실을 이제 우리 집 가훈으로 정했단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알며 검소하게, 부지런하며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내게 “네” 하고 대답하고는 초롱한 눈망울로 엄마를 뵈히 바라본다.

이제 또다시 한해를 보내게되니 지난 겨울이 생각한다. 유난히도 더 바빴던 한 해였다. 애들 삼촌의 결혼식과 이런 저런 잡다한 집안 일들, 아버님께서 모든 집안살이를 하시다 세상을 떠나신 뒤엔, 아빠와 내가 집안 일을 책임맡아 하자니 여간 신경쓰이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와 2남 1여의 세 아이들, 4,000여평의 농사, 또 소 5섯마리가 나를 항상 바쁘게 했다. 아빠라도 집에 계시서 도와주신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농협이 직장인 그이는 항상 바쁘시기에 집안 일을 돌볼틈이 없었다. 언제나 집안 일은 연로하신 어머님과 내가 해야만 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언제나 바쁘게 생활해야만 했다. 생활에만 쫓겨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내마음에 부딪힐 때면 자신이 왜 그리도 미운지 그냥 먼 하늘 바라보며 흐르는 구름에 내 마음 실어 보내며 “성실”을 되뇌이곤 했다.

지난 겨울, 정확히 12월 1일이다. 그 날은 닷새만에 열리는 시골 장날이기에 장을 보러 갔었다. 시골 사람들이 모처럼 나들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는 5km, 나는 그 길을 좋아한다. 그 길을 걸으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고 또 내가 잘 못된 점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걸기도 하는, 조금은 힘들지만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그 시골길을 좋아한다.

그날, 시장에서 우연히 평소에도 잘지내던 국민학교에 계시는 여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이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선생님께 “성실”을 붓글씨로 좀 써주실 수 없느냐고 그러더니 마침 선생님께서 배우시는 서예선생님께서 써주시게 있으니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사절지로 된 백지에 “성실”이라는 한자로 쓴 글



을 소중히 가지고 와서 액자에다 넣어 벽에다 걸어 두었다. 이제 우리집 가훈을 성실이라고 정했다며 나의 뜻을 아이들 아빠께, 또 아이들에게 말했다.

모두 성실의 뜻을 새기면서 남의 잘 사는 것, 좋은 것 탐내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그저 현실에 만족할 줄 알면서 노력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어지간히 치우고, 빨래를 하고난 뒤엔, 나는 습관처럼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이런 저런 생활정보와 음악을 들으며 한잔의 따끈한 커피-피를 마신다. 잠깐이나마 내 자신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농촌에는 가을것도 끝이 났으니 겨울에나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나만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아랫목에 엮드려 책을 보는 순간만은 느긋하고 푸근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 포근한 털실로 뜨개질 하는 내게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낄 것이다. 털실만큼이나 포근한 정을 나의 세 아이들에게 듬뿍 안겨주고 싶다. 그리고 또 어느날 출장에서 돌아오는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월간지한권에서 진한 부부의 사랑을 느낄 것이며 그 사랑에 나는 배불러 하며 마음을 살찌울 것이다. 그리고 바쁜 중에서도 잠을 내어 조용히 책을 읽는 엄마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할 것이다.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의 사랑속에서 무럭 무럭 자라는 아이들은 어느 사이엔가 “성실”을 배우게 될 것이라 믿는다.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부지런히 보고 듣고 읽고 느끼면서 보다 더 알차게 내일을 향해 자신을 키우려 한다. 그러한 엄마의 모습에서 소중한나의 꿈나무들이 곧고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아름다운 꽃동산

포곡 국민학교

6학년 백 진

어느날, 친구와 나는 같이 집에 가게 되었다. 길 가를 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어여쁜 꽃을 보았다.

“어머, 정말 예쁜 꽃이로구나! 우리 한 송이 꺾어가자.”

친구와 나는 예쁜 꽃이 눈에 들어 오길래 무작정 한 송이씩 꺾어 가졌다. 한참동안 예쁜 꽃을 보다가 친구와 나는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참, 꽃은 꺾지 말고 보기만 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어떻게 하나 다시 붙여 놓을 수도 없고.’

나는 친구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러자 친구도 똑같이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들은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동안 머뭇거리다가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다.

“애, 우리 이렇게 하자. 꺾은 꽃을 다시 전대로 해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 이 일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다져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 안 그래?”

나는 친구의 말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친구의 말을 따랐다. 그 후로는 꽃을 보면 예쁘게 보기만 하고 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꽃을 사랑하다 못해서 뽀뽀까지 해 주었다. 또한 누가 꽃을 꺾어 가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였다. 이렇게 이 일이 있는 후부터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간 것이었다.

우리집에는 나무가 많다. 새로 집을 지을때,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기 때



문이였다. 그러나 꽃은 적었다. 사루비아나 국화 등이 조금 있을 뿐이였다. 이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집에도 예쁜 꽃으로 꾸밀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다. 나는 다른집에는 어떻게 하고 친구의 집에 가 보았다. 그 집에는 여러가지 꽃들이 줄지어 그윽한 향기가 나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지 예쁘게 피어 있었다. 이것을 보고 더욱더 우리집에 꽃이 많이 있어 꽃동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어느날 학교에서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하여 나는 호미를 들고 나갔다. 꽃은 코스모스였다. 나는 집에서 못다한 꽃심기를 이번 꽃길 조성에다 쏟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힘껏 열심히 심었다. 나는 코스모스를 심으면서 조그마한 소리로 속삭였다.

‘코스모스 아가씨, 어여쁘게 자라세요’ 나는 곧잘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나라도 어서어서 다른 나라처럼 아름다운 꽃동산이 됐으면 좋겠어.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말이야. 그럼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거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고 말이야. 노랑, 빨강, 분홍, 주황할 것 없이 도시나 농촌에 아름다운 꽃길, 화단, 꽃동산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 이렇게 되면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되찾게 되고 꽃동산도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다.

요즈음 나는 지난 봄에 내가 심었던 코스모스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흠뻑 즐기고 있다. 코스모스가 서로 누가 먼저 크는지 시합을 하듯이 키도 많이 자랐고, 아름답게 봉우리를 터뜨렸기 때문이다. 나는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여러사람이 보기에 좋은 꽃길이 됐으니…….

나는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더욱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 아름다운 이 조국을 ...

신갈국민학교  
6년 이 현 경

“아빠, 아빠! 어서 일어나세요.”

웬일인지 오늘은 늦잠 꾸러기인 내가 아빠를 깨웠다.

“아이, 왜 그러니? 응?”

아빠는 눈을 비비시며 일어나실듯 하시더니, 다시 몸을 옆으로 하셨다.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 올랐다.

“아이, 아빠— 빨리 일어나봐요.”

나는 애교스러우면서도 화가 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재촉 하였다. 그랬더니 도리어 아빠가 화를 내시며 일어나셨다.

“왜 그래? 무슨일인데, 아빠 잠도 못자게 그러니?”

아빠, 아빠, 오늘이 일요일이 잤어요?”

“그래, 그런데?”

“일요일이어서 친구들이랑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보내주실 거죠?”

“그 애기 하려고 나를 깨운거니?”

“네, 아빠, 보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아빠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러시더니, 돈을 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무 늦으면 안된다. 알았지?”

“아이, 아빠— 내가 뭐, 한 두살 먹은 어린애줄 아세요? 그만한 것쯤은 아빠가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가구요—.”

나는 말을 마치자 마자, 친구들과 약속한 장소로 마구 달렸다. 아이들 모두 와 있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우리는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콧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었다. 얼마쯤 가니까, 차가 멈추어 섰다. 우리는 서로 내리려고 야단이었다.

내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를 빗겨주는 듯 내 머리 위로 넘어갔다. 나와 친구들은 길을 걸었다. 양길 옆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날리어 마치 어서 오라는 듯 고개를 숙이며 반겨 주었다.

공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많았다. 꽃들, 푸른 잔디, 크고 작은 나무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얼마쯤 더 가니까, 부러진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예전의 일이 생각났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나는 마당에서 공치기를 하다가 아빠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는 빨간 단풍 나무를 부러뜨렸었다. 그것을 본 엄마는 화를 벌컥 내시며

“아니, 애가! 이 일을 어쩐다—.”

하셨다. 나는 너무 겁이 나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저녁때가 되자, 아빠가 얼굴의 표정이 굳어지심과 동시에

“아니!”

하는 소리가 함께 나왔다. 나는 아빠에게 달려가 단풍 나무가 부러지게 된 이유를 말하고서는 가슴이 마구 뛰어 올랐다. 금방이라도 아빠의 화난 목소리가 터져 나올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아빠는 뜻밖에도 웃으시면서

“괜찮아, 얼른 가서 끈과 받침대를 가져와.”

하셨다.

나는 마구 뛰어가서 끈과 받침대를 가져왔다. 아버지께서는 끈과 받침대를 가지고 정성껏 동여 매시고는

“현경아, 네가 이 나무를 부러뜨렸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니? 그것은 그만큼 자연을 해치는 셈이 되는 거란다. 이제 두고 보렴. 이 단풍 나무는 다시 살아나서 초록빛 싹을 틔울테니 말이다.”

얼마가 지난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나무도 다른 나무들처럼 과란색을 띄운 것이다.

“현경아,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니?”

친구가 환상에 젖어있는 나를 깨웠다.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이들과 다시 길을 걸었다. 그때, 나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아이들과 돌아 다녔다. 아이스크림도 사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산 밑으로 숨으려 하면서 빠알간 노을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간이 거의 다 된것 같아 우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거장으로 가는 길에 올때에 보았던 꽃들을 보았다. 이제는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차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느꼈다.

‘조상들이 피땀흘려 지켜왔고, 그 뼈 묻혀온 우리 이땅! 이 땅에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88올림픽이 열리게 된다. 그때에는 우리 나라에 많은 외국인이 올 것이다. 외국인에게 깨끗한 거리, 명랑한 거리, 꽃과 풀로 가득한 거리를 보여주면 좋겠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공원처럼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 어느덧 도착 하였다.

집으로 온 나는 오빠에게 공원에 가서 느낀 것을 다 말했더니, 오빠는

“이야! 우리 현경이도 그런 생각을 할줄 알아?” 하였다.

나는 아주 당당하게

“그럼— 나 이제 청소도 잘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될거야.”

“애가 웬일이지?”

오빠의 의아해하는 표정에 나는 마음속으로 답했다.

‘조상들이 지켜온 이 아름다운 땅을 깨끗하게 공원처럼 만들고 싶어서야. 아름다운 이 조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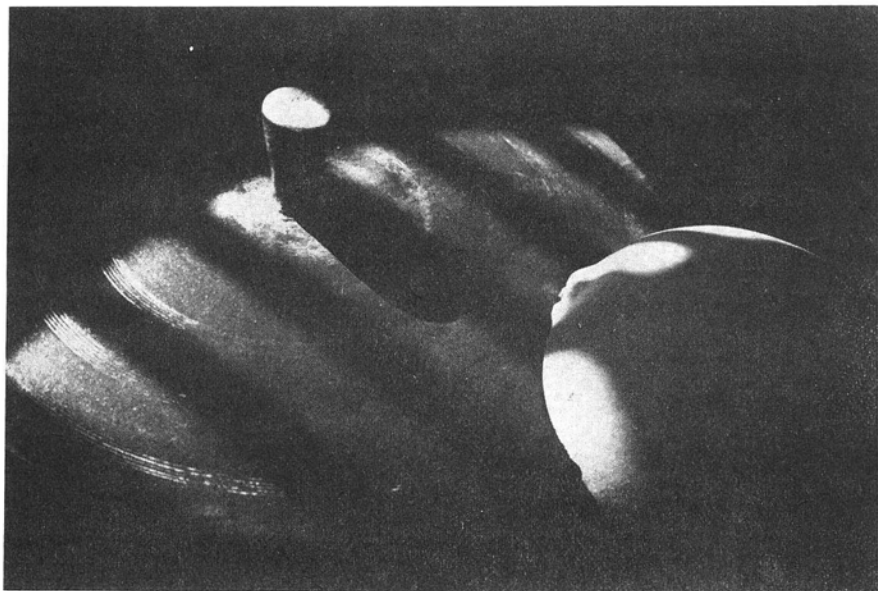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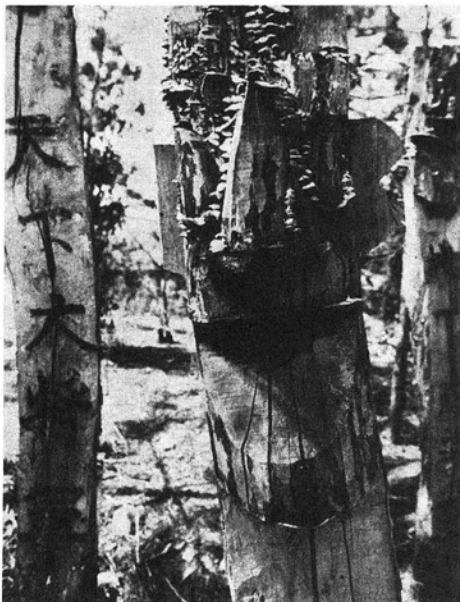


# Photo Essey

김 윤 향



오늘을 사는  
우리네는  
정작  
귀한 것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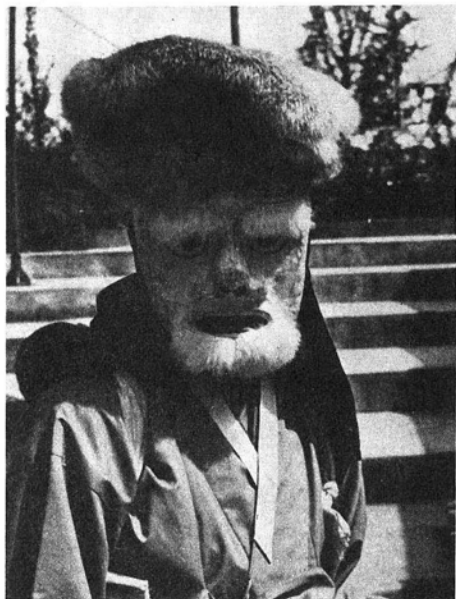
天下大將軍

그속에 스민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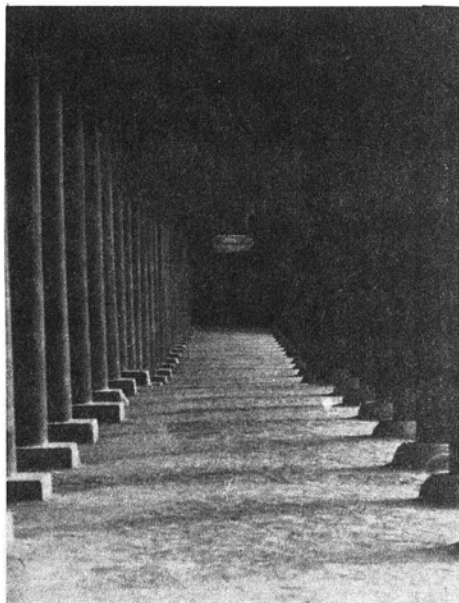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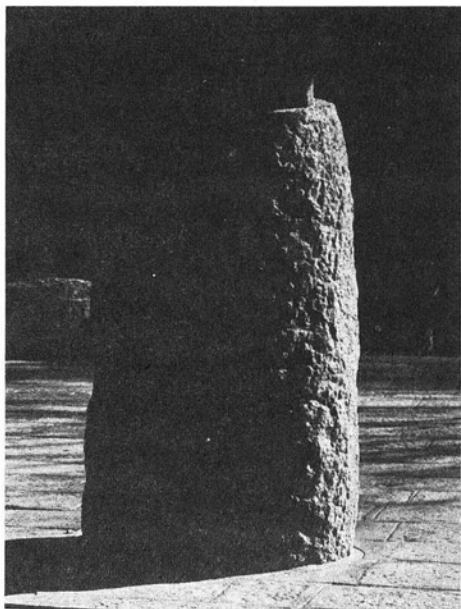
魂이요

脈이라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우리만의  
모습일진대



이것은  
우리 民族이  
고히 간직한  
純白이었으리라



새삼스레  
옛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것은  
어제와 오늘의 調和속에서  
創造된다는 것을……



1. 학 교 명 : 경희대학교
2. 총 장 : 박양원〈서울캠퍼스〉  
부 총 장 : 양병택〈수원캠퍼스〉
3. 주 소 : 수원캠퍼스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산 1  
서울캠퍼스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 1. 연혁개요

경희대학교의 연원은 1946년 培英大學館과 1947년 설립된 新興專門館이 합병하여 1949년 5월에 발족한 신홍대학을 현 이사장 조영식 박사가 1951년 인수함으로써 시작된다.

이후 대학원 설립(54년) 문리대, 법대 등 4개 단과대학을 가진 종합대학교로의 변모, 본관 등 각 건물과 학과증설은 물론 대학신문, 방송국 등을 부설한 50년대의 건설기를 맞는다. 그리고 신홍대학에서 「경희대학교」로의 교명 변경(60.3.1)과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등

단과대학과 간호학교, 호텔경영전문대학,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등의 병설로 명실상부한 「경희学園」으로서 일신한 60년대의 발전기를 거쳐, 70년대에는 각 부속병원의 설치, 연구기관 등의 설립 등 꾸준한 발전을 계속해 왔다.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의 경희정신과, 전인교육을 통해 고매한 민주주의적 품격을 도야함으로써 문화복지사회 건설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창학정신으로 간단없는 발전을 해온 경희는 드디어 1979년 1월 19일 수원대학 신설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 2.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발전

79년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9개학과로 출발한 「수원대학」은 서울캠퍼스와 달리 현대식 시설에 의한 과학교육, 외국어 교육의 강조,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 등 새로운 사학상 정립을 위한 「뉴칼리지 시스템」의 구현을 목표로 본래의 경희 정신에 새로운 경희의 모습을 접목하는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1980년 「수원대학」에서의 첫 입학식을 갖고 매년 학과 증설을 거듭해왔으며 83년, 서울 캠퍼스로부터의 산업대학의 이전과, 공과대학의 일부 학과의 이전과 함께 「수원대학」은 기존 5개 학부(경상, 어문, 법정, 체육, 이공)를 단과대로 승격 「경희」의 이름아래 2개 캠퍼스 중 하나인 종합캠퍼스로 편제 개편하였다. 이것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은 수원 캠퍼스는 이어 기존 학과에다 유전공학과, 태권도학과, 전자계산학과의 신설과(84년) 우주과학과(85년) 등의 진보적인 학과의 보충으로 현재 33개학과(서울 캠퍼스는 34개학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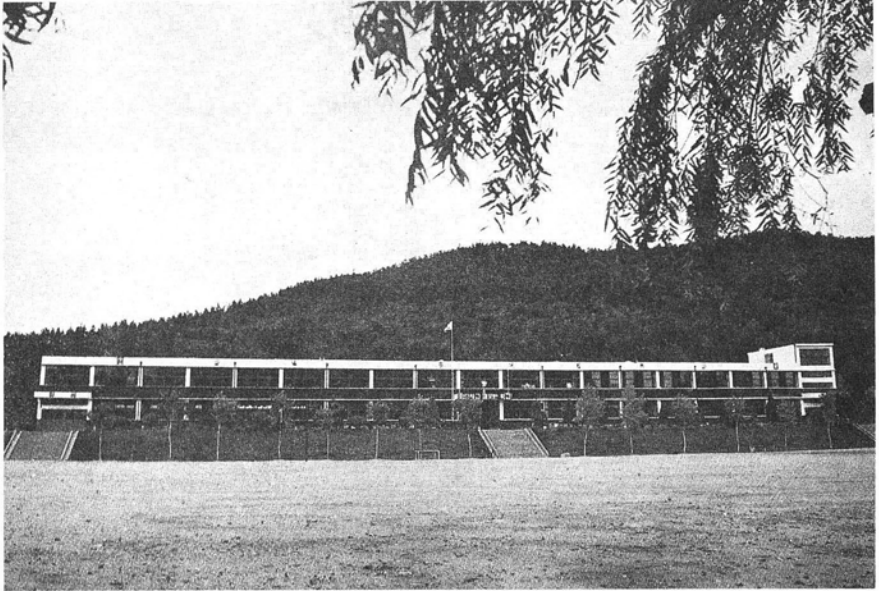
또 수원대학 설립시부터 원자력공학과에는 국내 3대밖에 없는 실험용 원자로가 있고, 대형 컴퓨터실(83), VTR 실을 포함한 최신 어학실습시설, 동양 최대시설의 체육대학관 등의 교육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3. 수원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

서울 캠퍼스와 동일한 수준의 규모와 역할, 21세기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목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는 86년도부터 학생을 수용하는 사회과학관, 산업대학관 등 5동의 교사와, 기숙사(570명수용), 운동장과 산업대의 야외실습시설 등 각 단과대학별 부대시설

이 45만평 부지위에 15만평 규모로 건설되어 있다.

6천여명의 재학생이 있는 본교는 앞으로 학과증설과, 첨단학문의 교육으로 새로운 형태의 진보적인 종합 캠퍼스가 될 것이며, 용인·경기 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캠퍼스와 함께 국가 사회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터전이 될 것이다.



1. 학 교 명 : 모현중학교
2. 학 교 장 : 이 병 옥
3.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 540번지
4. 연 혁 : ○ 1974. 12. 27 설립인가 (12학급)  
○ 1975. 2. 15 초대 이기영 교장 취임  
○ 1975. 3. 5 신입생 입학식 (219명)  
○ 1978. 1. 17 제 1 회 졸업식 (219명)  
○ 1980. 9. 1 제 2 대 이병옥 교장 부임  
○ 1982. 9. 23 취타 악기 기증 받음 (25 인조)  
○ 1983. 3. 5 모현중학교 장학회 장학금, 각종 장학금 수여 11명  
○ 1984. 9. 28 경기교위주최 중등학생 음악·무용 발표 대회 56명 참가 국악 합주 1위 (4년패)  
○ 1985. 2. 14 제 8 회 졸업식 221명 (총 1,817명)  
○ 1985. 3. 2 입학식 (236명)



5. 교육목표

- (1) 효도하고 충성하며 민족 주체의식이 강한 민주 시민을 기른다.
- (2) 기초 학력의 향상과 문제 해결의 힘을 높이는 사람을 기른다.
- (3) 근면·절약·저축하는 습관과 예절바른 사람을 기른다.
- (4) 과학 기술의 실기에 능한 사람을 기른다.
- (5) 건강한 체력과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기른다.

6. 학교상징

- 교훈: 성실, 협동, 사랑
- 교화: 개나리
- 교목: 향나무

7. 학교현황

학 생 현 황	졸업생현황	교직원현황
1학년 4학급 242명	8회 1.817명	교원 19명
2학년 4학급 266명	(1985.2.14 현재)	일반직 5명
3학년 4학급 229명		
계 12학급 737명		계 24명

8. 학교교육현황

가. 학교 특색

- ① 모현 중학교 장학회 추진
  - 장학기금 조성-모현 장학회 2,979,776W  
동창회 장학금 170,000W
  - 자활학교 기금 조성-2,136,000W
  - 교직원 장학회-60,000W
- ② 취타대 육성
  - 52명으로 구성
  - 1981~1984년 도대회에서 최우수 4년패
  - 1985년 도대회 2위 입상
- ③ 학교 공원화 조성
  - 학교 주변 생울타리 조성
  - 사철 꽃 피는 학교가꾸기

<학교순례>\*\*\*\*\*

- ④ 특별 활동의 활성화-특활 영역별 균형 운영
  - 취타부 도대회 4년패
  - 과학반 과학상자 조립 전국대회 준우승
  - 용변반 전국 남녀 용변대회 이재형 국회의장상 수상
  - 문예반 전국 청소년 시 낭송 대회 장려상 수상
  - 미술반 군대회 특선

나. 노력중점

- ① 기초학력 확보-•기초 학력 미달자 협력 학습 실시 •학급문고 설치 운영
- ② 애향대 활동 내실화-•5대 덕목 생활화 •향토 독본 교과와 연계지도
- ③ 기본생활 습관 지도의 생활화-•기본 생활 습관 자평 카드 작성 활용
- ④ 과학 탐구 교육의 정착-•실험 중심 수업 전개 •컴퓨터 교육 실시
- ⑤ 해양탐구 교육의 내실-•해양코너 설치 정비 운영
- ⑥ 우수 선수(탁구 테니스) 발굴 지도 육성

## 四隱亭 探訪記

南羅國民學校 校長 趙 潤 元

초겨울의 햇살이 엷어져가는 12월 初旬 어느날 平素 마음먹고 있던 四隱亭 探訪을 하기로 하였다. 韓國民俗村 버스 停留場에서 市内버스를 내려 民俗村에서 흘러내려오는 조그마한 냇가를 건너 芝谷里로 가는 고갯길로 들어섰다.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鋪裝이 되어 있는 이 길을 500m나 걸어서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芝谷里 下洞 마을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개를 조금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오솔길이 있고 民家가 두어채 山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그 民家를 지나 삼태기 안처럼 우묵한 골짜기에 조그마한 洋屋建물이 한채 서 있다. 이 建물이 오랜 歷史를 간직한 四隱亭이라는 亭子인데 建物 앞뒤가 다같이 급한 頃斜로 이루어졌으며 周圍는 4, 50년 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建물은 세멘콘크리트로 四方이 壁으로 둘러쳐져 있고 前面과 後面에 出入門과 窓門이 있으며 지붕은 韓式 기와로 덮여 있다. 建物 안의 面積은 約 8坪程度이며 바닥 역시 시멘트로 되어있다. 이 亭子是 約 450年前에 建立된 以後 重修를 네 차례나 하였다고 하는

데 南西쪽 안벽에 漢文으로 된 重修記 懸板 두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 또 南東쪽으로 난 出入門 위에는 篆書體 漢字로 쓴 四隱亭이라는 懸板이 걸려 있다. 元來 이 建物は 둥근 나무기둥에 附椽을 단 韓式 기와집이었으나 1969年 重修할 當時 콘크리트 建물로 改築하여 原形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四隱亭은 南東쪽에 있는 負兒山을 坐向으로 삼고 芝谷里 긴 골짜기가 흰히 내다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負兒山에서 發源하여 흐르는 芝谷川 물이 四隱亭을 向하여 흘러오다가 바로 四隱亭 앞 벼랑 밑에서 北東쪽으로 물길을 바꾸어 民俗村 뒷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 近處에는 巨大한 바위가 냇가 바닥이나 양쪽에 突出하고 있다. 이러한 바위를 도는 물줄기가 꽤나 깊은 물을 이루고 있어 붕어나 피라미같은 淡水魚들이 많이 노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 용바위니 굴바위니 하는 바위가 있고 봄과 여름철에는 물이 맑고 이 一帶 景觀이 아름다워 하루쯤 몸과 마음을 쉼만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또 芝谷里 골짜기가 四隱亭 近處에 이르러서



는 갑자기 좁아져서 마치 긴 자루 아가리를 바삭 조여맨 것 같은 形象이 되어 그 사이가 不過 3, 40m 거리밖에 안 되는 特異한 地形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곳에 位置한 四隱亭은 北과 西쪽이 막히고 東과 南이 트인 아늑하고 호젓하며 展望이 좋은 곳으로서 可히 亭子로서 아주 適合한 곳을 擇했거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由緒깊은 四隱亭은 李朝 中宗 때 改革政治를 主導했던 議政府 右參贊 韓山 李氏 李紆先生(號 陰崖)과 司憲府 大司憲 漢陽 趙氏 趙光祖(號 靜庵)先生이 建立하였다고 한다. 이 경치 좋은 곳에 亭子를 짓자는 陰崖先生의 提案에 靜庵先生이 이에 應하므로써 짓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亭子에서 讀書도 하고 思索도 하며 詩도 짓고 읊으던 곳이라고 한다. 四隱亭이란 山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밭 갈고(耕) 땀나무를 하며(薪) 낚시질도 하고(釣) 藥草를 캐는(採) 것을 4가지 樂으로 생각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四隱亭을 建立한 後 陰崖先生이 이 亭子에서 돌이만 지내기가 너무 孤寂한데 이 近處에 같이 지낼만한 벗이 없겠느냐고 물은즉 靜庵先生이 나의 4從 두 사람이 近處에 살고 있는데 請하여 오게 하면 어떠냐고 하매 陰崖

先生이 그것 참 좋다고 하여 靜庵先生 四從 두 분이 四隱亭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두 분이 趙廣輔(號 方隱) 廣佐(號 晦谷) 兄弟분이다. 後에 이 中 세 분은 上京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方隱先生은 몸이 불편한 老母님을 끝까지 모시느라고 뛰어난 儒學者였으나 한 平生 벼슬하지 않고 지냈으며 四隱亭을 혼자 지키다가 世上을 마쳤다고 한다. 한 편 韓山 李氏 陰崖先生과 漢陽趙氏 晦谷先生은 結義兄弟를 하여 지금까지도 兩家가 婚姻을 안 한다고 한다. 그리고 陰崖先生의 後孫들이 지금도 芝谷里에 30餘戶 살고 있고 晦谷先生 後孫들은 甫羅里에 40餘戶 程度 살고 있다.

네 분 先生이 돌아간 후 그 後孫들이 해마다 春秋로 이 亭子에서 詩會를 열어왔으며 요즘에 와서는 每年 陰曆 冬至달 초 하룻날 이 亭子에서 兩家門의 親睦會를 갖는다 한다.

四隱亭에 들어가 漢文으로 된 重修記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懸板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비록 조그마한 亭子이긴 하지만 오랜 歷史를 간직하고 祖上의 숨결이 깃든 文化財라고 생각할 때 簡單한 案内板이라고 하나 세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였다.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입선  
공로상 수상(민요부문)＝

## 龍仁 타맥(打麥)놀이

하 주 성

### 1. 概 要

옛부터 우리 民族에게는 “보리고개”라 불리우는 빈곤한 春窮期가 있었다. 이 때는 陰歷 3~4月頃으로 보리를 타작해서 수확을 얻기 전이고 쌀도 떨어질 때이며 기타의 作物도 全部 떨어질 때로 草根木皮로 연명할 시기이다. 이러한 때를 맞아서 보리를 타작하는 이 노래는 얼른 보리를 타작해서 보리떡이나 보리죽이라도 온 식구가 둘러앉아 마음껏 포식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온 洞里가 모두 모여서 興에 겨운 한마당의 잔치 분위기에 젖게 된다.

생각하건데 논 농사의 노동요는 季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데 이 보리농사의 勞動謠는 유독 이 打麥謠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는 興도 노래도 나타날 수 없다는 單純한 원리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時期에 가득 기대감에 부푼 이 보리타작의 한마당이야말로 기대감에서 오는 흥분과 슬렁임으로 소리와 합성, 興과 춤의 한마당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 타작을 하는 집에서는 겨우내 아껴두었던 식량으로 밥도 짓고 술도 담구어 온 洞里의 사람에게 대접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단순한 작업의 능력을 올리자는 논농사의 노동요의 뜻과는 또다른 一面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打麥謠는 이제 京畿地方에서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단지 口傳에 의해서 한두마디씩 傳해지던 辭說을 整理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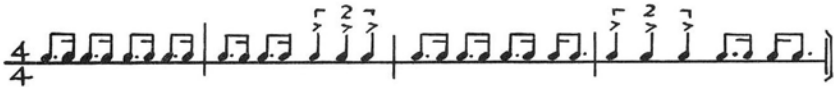
### 2. 龍仁郡 二東面の 打作 勞動謠

1985年 10月 4日 第4回 京畿道 道知事旗爭奪 民俗藝術競演大會에 참가한 龍仁郡 二東面 묘봉상리 部落을 主軸으로 이루어진 打麥謠의 演戲方法 및 其他 內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演戲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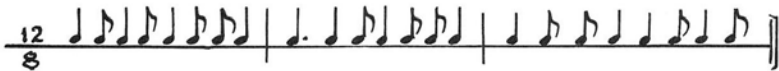
農旗(때에 따라선 演戲名旗)와 북을 멘 선소리꾼을 앞세운 一同이 入場하면 잦은 가락에 맞추워 어깨춤을 추면서 演戲場의 한 가운데에 보리단을 깔아놓고 도리깨질꾼들이 그 周圍를 돌며 洞里의 아낙네들이 흥겹게 어깨춤을 춘다.

(악보 1 : 작은가락)



打作을 하는 주인 영감이 “자 이제 태질을 시작하세”하고 외치면 “어허야”의 소리에 맞추워 잣은가락을 치고 절구를 누여 놓고 절구공이를 양편을 받쳐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 그 위에 보리단을 내리치는 태질을 시작한다. 태질은 2명이 잣은가락에 맞추어 선소리와 후렴에 맞추어 교대로 내리치게 되며 어느 정도 태질이 되었으면 주인 영감이 “자 이제 태질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 도리깨질을 하여보세” 하고 소리치면 一同이 “네” 하고 대답하며 도리깨를 치켜든다. 이때는 선소리꾼이 잣은가락의 북 장단을 몰아 그치고 삼채장단을 치며 선창을 부르면 모든이들이 후렴을 받으면서 도리깨질꾼들은 빙 둘러서서 한 사람을 건너서 한편은 선창 부분에 한편은 후렴 부분에 도리깨를 내리치고 洞里 사람들은 그 주위를 돌며 각자 허튼춤을 춘다.

(악보 2 : 삼채장단)



보리단을 한참 두드리다가 주인 영감이 “자 이제 쉬었다 하세” 하고 외치면 도리깨질꾼과 태질꾼은 물러서서 술을 한잔씩 마시고 그 동안에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보리단을 까부르기도 하고 술도 한잔씩 퍼주며 흥겹게 노래를 한다. 선소리꾼이 “자 이제 비도 올것 같고 하니 우리 빨리 끝내고 쉽시다” 하고 외치며 다시 도리깨질을 시작하면 이때는 잣은가락에 맞추어 사설과 후렴이 빨라진다. 한참을 도리깨질을 하다가 선소리꾼이 “쉬 보리난다” 하고 외치면 노래는 멋고 도리깨질은 그 속도를 빨리하면 모든이들이 “어이차” “쳐라” “넘겨라” 등의 口號를 외치며 打作 마당의 興은 절정에 달하게 되고 부서진 보리단을 도리깨에 말려 올라가 주위에 나부끼며 한창 흥이 고조된다. 다시 주인 영감이 “자 이제 자루에 담아보세” 하고 소리치면 넝가래, 싸리비, 갈퀴 등을 가진 洞里 사람들과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여차 여차 소리치며 보리단을 모아들이고 한쪽에서는 興에 겨운 춤을 춘다. 이러한 打麥謠의 노래와 打作마당은 그야말로 근 2달여를 굶주렸던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오는 興으로 누구나 다 同和되어 즐길 수 있는 洞里의 한마당 部落祝祭의 性格을 띠고 있다.

○打麥謠의 辭說

(삼채장단)

어허야 보리로다

(후렴) 어허어허 어허야

옥신옥신 보리로다

힘을주어 후려치세

사정없이 후려보세

늘보리나 쌀보리나

사정없이 후려보세

바서지게 후려보세

이보리를 다털어서

나라에도 봉사하고

이보리를 다털어서

아침방아로 한번짚고

저녁방아로 두번짚어

세번네번 거둬짚어

맷돌에다 돌돌갈아

보리가루 만들어서

보리개떡 보리죽을

온식구가 다먹는다

이보리를 다바수어

아침방아로 한번짚고

저녁방아로 두번짚어

보리개떡 만들어서

온식구가 다먹는다

여기도 후려보고

저기도 후려보세

이 보리가 뉘보린가

김서방네 보리로세

얕은마당 깊어지고

깊은마당 얕아지고

잘도한다 잘도한다

우리일꾼 잘도한다

부서지게 후려보세

힘을주어 후려보세

(잡은가락)

이 보리가 (후렴) 어허야

뉘보린가 김서방네 보리로세

문질러보세 곁보리를

높은데는 팡팡치고

낮은데는 가만가만

왕개춧심 거꾸로 잡고

옥신옥신 문게보세

쌀보린가 늘보린가

옥신옥신 후려보세

어떤사람 팔자좋아

일안하고 잘사는데

우리같은 인생들은

무슨팔자로 땅을내나

보리대를 털어내라

보리대를 털었으면

붓대질을 하여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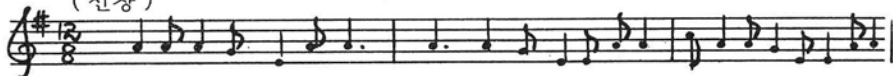
어허야 보리로다

어허야 보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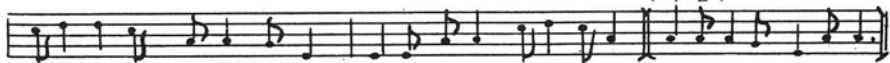
(打麥謠의 旋律)

<삼채장단>

(선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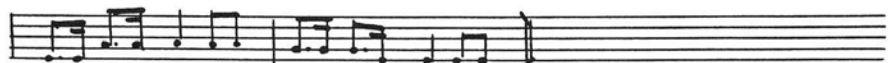
(후렴)



<작은 장단>

(선창)

(후렴)



○人員의 構成

第4回 民俗競演大會에 참가한 人員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 선소리꾼 : 1명
  - 주인영감 : 1명
  - 깃대잡이 : 1명
  - 도리깨꾼 : 10명
  - 태 질꾼 : 2명
  - 지 게꾼 : 2명 (1명은 뒤집기를 맡고 1명은 붓대질을 한다)
  - 칼퀴잡이 : 1명
  - 싸 리 비 : 1명
  - 녀 가 래 : 1명
  - 아낙네들 : 10명
- 계 38명

지도 재현 고증 : 하 주 성



## 용인지나는 도중에서 (龍仁途中)

이 덕무(李德懋) 지음

이덕무(1741~1793)는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로, 호는 형암(炯庵), 아정(雅亭), 청장관(靑莊館), 영처(嬰處), 동방일사(東方一士)이며, 자는 무관(懋官)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경사(經史)와 문장에 뛰어났으나 서출(庶出)이었기에 크게 등용되지 못했다. 정조 2년(1778) 북경에 다녀와서 북학(北學)을 제창하였고, 1779년 규장각 검서관이 되어 박제가(朴齊家), 유득공(柳得恭), 이서구(李書九)와 함께 4검서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글씨와 그림에도 뛰어났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그의 저작(著作)이 모두 실려 있다, 다음의 시는 그가 용인을 지나며 느낀 감회를 적은 시이다. 『청장관전서』 중 「아정유고(雅亭遺稿)」에 전한다.

### 용인지나는 도중에서 (龍仁途中)

누른 풀 가늘고 돌 비탈 희미한데  
토만두 가의 나무들 아름에 가득차네  
채찍에 따른 붉은 잎은 돌며 춤추고  
갓에 뛰는 붉은 벌레 선명하게 나누나  
저녁을 지나니 배는 붉은 쌀밥이 편하고  
가을 당하니 몸에는 흰 솜옷이 좋구려  
한 물구비 노을이 연지처럼 고우니  
찬 마을 정자 문에서 손을 질머지고 있네

黃草纖纖石磴微  
土饅頭畔樹盈圍  
趁鞭彤葉回旋舞  
跳笠紺蟲歷飛  
經夕腹便紅米飯  
當秋身吉白綿衣  
一灣霞作臙脂艷  
負手寒邨井字扉

그림과 시가 지경을 따라 펼쳐지니  
벌여 있는 광경 변하지 않음을 깨닫겠네  
맑은 벼 소리 쌀쌀하니 다니면서 들겠고  
저녁 때 잎새 밝으니 펴서 글씨 씌움직하네  
낙조에 소는 외로운 나무 길로 돌아가고  
빈 들 맑은 연기속에서 말소리 들리네  
한 숲에 우짖는 이름 없는 새는  
기심(機心) 없음 아는듯 내게 다가오누나.

畫譜詩箋觸境舒  
森羅光景悟如如  
晴禾瑟瑟行當聽  
夕葉紅明展可書  
落照牛歸孤樹逕  
曠郊人語淡烟廬  
一叢嘈噴無名雀  
解喆忘機故近予

철언 율시로 된 두 편의 시이다. 작품 전체의 분위기로 보아 가을 걷이가 끝난 늦가을의 정취를 담은 시라 할 수 있다. 텅빈 들판을 지나다 이제 막 땅거미가 지려는 저녁 무렵에, 나그네의 회포를 금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작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늦가을의 정취를 〈누른 풀〉 〈붉은 잎〉 〈붉은 벌레〉 등의 시어로 표현했는가 하면, 석양의 정취를 함께 깃들이고자 했다. 온통 벌판이 붉은 색조로 물들여져 있다. 그 붉은 색조에 다시 〈흰비탈〉 〈흰 솜옷〉 등의 시어를 빌어 흰색의 대비를 아울러 놓았다. 가을의 색조가 “누른색”이라 한다면, 여기서의 “흰색”은 겨울의 문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같은 계절 감각을 우선 색조의 대비로 표현하였다는 데서 이 시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작자는 다시 여기에다 〈찬 마을〉 〈쌀쌀하니〉 등의 촉각적인 이미지를 곁들여 계절감각을 뚜렷이 해 놓았다. 길을 지나는 나그네로서의 객수(客愁)를 우선 이같은 이미지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가을 걷이가 끝난 뒤의, 황량한 빈들위에, 다시 저녁 노을이 깔리는 정황(情況)은 옛 시인이거나, 현대 시인이거나 누구나 욕심내서 써보고 싶은 정경이리라. 이 시의 작자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시야(視野)에 펼쳐진 정황은 한 폭의 그림이다. 빈들판 멀리서 저녁 짓는 연기가 일고, 그곳으로부터 말소리가 들리는 듯한 다감(多感)한 모습을 그렸는가 하면, 낙조(落照)를 등에 지고 외로운 나무 길로 돌아가는 소의 모습에서 한적함과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이같이 한적한 들판 멀리서 서서 작자는 무심(無心)한 마음으로 주변의 정황에 도취된 채 서있다.

“한 숲에 우짖는 이름없는 새는 / 기심 없음 아는 듯 내게 다가 오누나” 라는 짓구는 작자와 자연과의 동화(同化)를 보여준 예이다.

위에서의 이같은 풍경은 다른 농촌을 지나면서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독 이 시인이 나그네로서의 객수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다름아닌, 이 짓구 앞 부분에서 볼 수 있는, “토만두가의 나무들 아름에 가득차네”에서의 〈토만두〉가 시사해 주는 의미라고 본다.

〈토만두〉는 그 모습이 만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무덤”을 의미한다. 작자가 용인을 지나면서 느낀 감회 중에서도, 이 〈토만두〉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고장 사람에겐 흥미를 갖게 한다. 누군가가 용인을 지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도처에 널리 〈토만두〉였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백여년이 지난, 요즈음에 민영(閔泳)이라는 시인이 쓴 《용인 지나는 길에》에라는 작품에서도 이같은 발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여간 흥미롭지 않다. 앞에 소개한 한시와는 주제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 고장 용인을 지나며 똑같이 <토만두>를 본 감회를 적고 있다는 점은 일치한다. 그 본문만 옮겨 적는다.

## 용인 지나는 길에

민 영

저 산벚꽃 핀 등성이에  
지친 몸을 쉬까  
두고 온 고향 생각에  
고개 젖는다.

뺨에 역겨운  
可口可樂 물 냄새  
구국 구국 울어대는  
맷비둘기 소리

到彼岸寺에 무리지던  
연분홍 빛 꽃너울  
먹어도 허기지던  
三春 한 나절

산 벚꽃 진 등성이에  
뼈를 문을까  
소태같이 쓴 입술에  
풀잎 씹힌다.

·〈錫〉



# 地名由來

李仁寧

## 방축골 (防築谷)

수지면 풍덕천리 토월(吐月) 부락, “달이 뜨는 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어 토월이라 했다” “지금은 흔적이 없으나 약 80여년 전에 이곳에 방축이 있어 방축골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연혁집) 그러나 ‘방축’ 이라고 한 것은 80여년 전이 아니고 실은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다음 해인 정축년(1637), 1월 5일 전라병사 김준룡이 이끄는 근왕병이 이곳에 방진(方陣)을 구축하고 사방에서 적을 맞아 싸울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김준룡은 이곳에서 여러 차례 접전하여 적장 백양을 죽이는 전공을 세워 호란 중 가장 큰 전과를 올렸다. 그 후 이곳을 방진축(方陣築)이라고 부르던 것이 줄어 방축(防築)이 되었다.

## 용덕사 (龍德寺)

이동면 묵리 용덕사는 신라 문성왕 때에 초창되었다고 전하며, 당시의 절터로 보이는 석단이 남아 있다.

절의 명칭이 “용덕사”인 것은 “용의 덕을 보았다”라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전한다. 즉 최씨 성을 가진 한 처녀가 지성으로 부친을 봉양하였는

데 병이들어 와석하자 처녀는 이 절에 와서 늘 빌었다. 절 뒷쪽에 큰 암굴이 있는데 이곳에는 천년을 기다려여 의주를 얻은 용이 승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용이 처녀의 효심에 감복한 나머지 여의주를 내주면서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빌도록 하라고 하였다. 처녀는 부친의 병을 낫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어 뜻을 이루었으나 용은 다시 천년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눈물을 흘렸다. 이때 용이 눈물을 흘렸다는 굴 입구의 양쪽에서는 지금도 샘물이 고여 있다. 그 후로 이 절을 용덕사(龍德寺)라고 불렀다.

## 독서대 (讀書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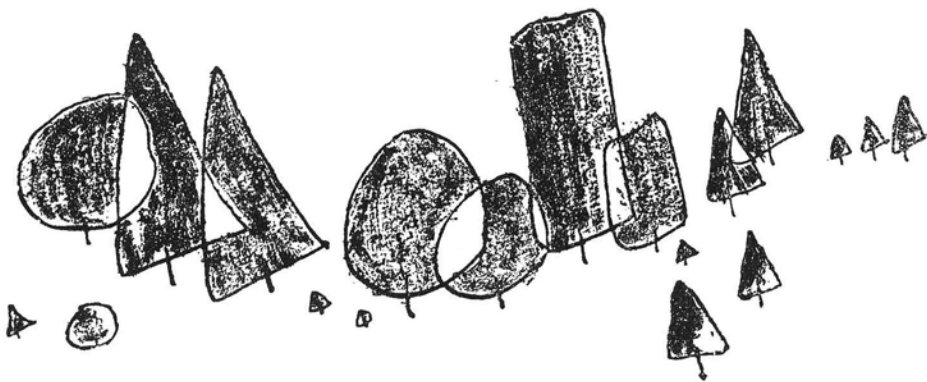
이동면 천리 샘골 동북쪽 골짜기 전 나무 숲 근처를 독서대라고 부른다. 이는 조선 문신이며 성리학자이던 도암(陶庵), 이재(李穡) 선생이 그의 부친 만창(晩昌)이 별세하자 이곳에 장사한 후 묘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매일 그곳에 찾아가 학문을 연마하다가 조선 숙종 28년(1702) 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의 관위에 올랐으며 후에 낙향하여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더불어 장수강학(藏修講學) 하였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그곳을 독서대(讀

書臺)라고 불렀다.

## ◆ 머내 (모내)

수지면 동천리와 성남시를 경계하는 탄천, 이곳을 속칭 “머내”라고 부른다. 머내는 본시 “머흔내”의 준말이며 “머흔내”는 험천의 차음이다. 우리 말의 고어(古語)에 “험하다”를 “머흐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험천(險川)이 된다. 용인 현읍지를 보면 재현서 15리 수지면에

있다고 하였고 이곳에 장터 비슷한 점(店)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잠와 최진립 선생 실기>를 보면 정축기사조에 청나라 군사와 단병접전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데 이 책에는 이곳을 원우천(還于川)이라고 표기하였다. “원우천”은 “머흔내”를 “면-내”로 차자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머내(모내)”는 본시 “머흔내” 즉 험천에서 유래된 순수한 우리말의 지명이다.



## 의인(義人) 윤섬(尹暹)

李 仁 寧

윤섬의 자(字)는 여진(汝進), 號는 과제(果劑), 본관은 남원이며, 조선 명종 16년(561)에 지사(知事) 윤우신(尹又新)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다.

선조 16년(1583)에 문과에 급제하고 사헌부 지평을 거쳐 선조 20년(1587), 서장관(書狀官)으로 뽑혀 개정보전(改正寶典)을 나누어 받은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에 책록되었던 인물이다.

이 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박호(朴虎)이경류(李慶流)등과 함께 이 일 장군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상주(尙州)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임진왜란의 급보에 접한 조정은 이 일(李鎰)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왜적을 막도록 하였다.

대명을 받은 이 일은 병조에서 골라 놓은 병정들을 점검하고 보니 군사 혼련이라고는 전혀 받아본 일이 없는 백도서리(白徒胥吏)의 유생들 뿐이었다.

이들은 서로가 병역을 면하고자 갖

가지 핑계를 대는가 하면 개중에는 피병을 하는 자, 천치 불구를 가장하는 자 따위들이 뜰에 꼭 차서 가관을 이루었다.

이일은 쓸만한 인재를 고르다가 그 중에서 윤 섬의 이웃 친구 한 사람을 뽑았다.

그 사람은 3대 독자의 외아들로써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사는 사람이었다. 이의 사실을 알게 된 윤 섬은 한 고장 태생인 이일 장군을 찾아가서 그 사람은 노모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외로운 사람인데다가 그 어머니가 밤낮으로 울고 계시며, 또한 형제도 없는 외아들이니 공께서 살펴 주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오직 친구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므로 스스로 그 입장을 애써 진정했던 것이다.

이일 장군은 난감해하면서 국가의 존망이 장차 여기에서 결판 지어질 것이므로 종사관은 아주 잘 골라야 하겠는데 지금 모인 병정들의 사기와 정



〈내고장 人物〉

은 장차 임금을 어찌 뵈올 수 있겠읍 니까 라고 말하면서 박호, 이경류와 함께 최후까지 싸우면서 군사가 후퇴할 수 있도록 적을 막다가 끝내는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들을 두고 후세 사람들은 삼종사(三徒事)라고 하였으며 윤섭을 두고 의인(義人)이라고 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행적을 가상히 여겨 인조 을유년(1645)에 충신의 정려문(旌閭門)을 내리고 용양부원군(龍

陽府院君)에 피봉하였으며 문열공(文烈公)으로 시호가 내려졌다. 그의 충신 정려문은 용인군 구성면 청덕리 산31번지에 거주하는 종손 윤용운씨의 가묘에 전하고 있으며 그의 묘소도 청덕리에 수호되고 있다.

친구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이 분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 용인이 배출한 하나의 자랑거리이다.





## 駒城面 東栢里 所在 할미산성 (老姑城) 에 대하여

향토문화연구위원  
용인상업고등학교  
정 양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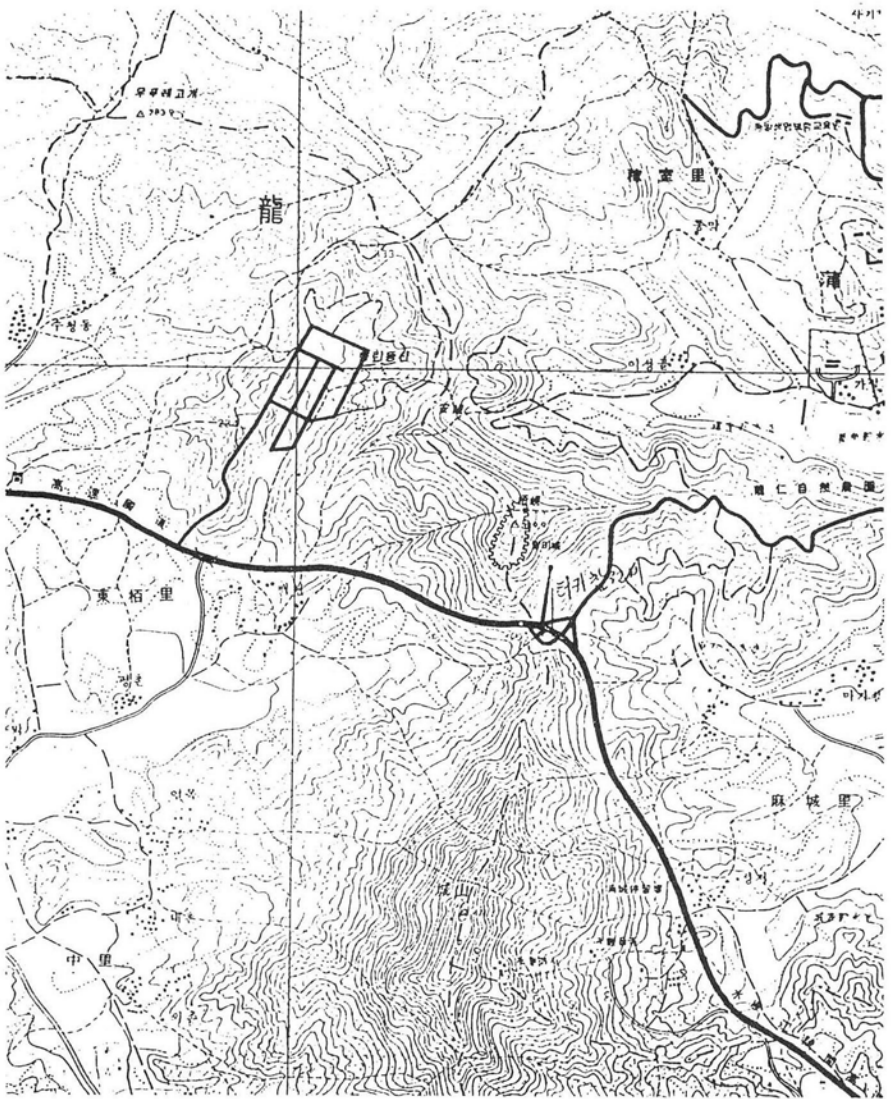
### 1. 조사경위

본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회에서 연차적으로 군내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오면서 성산(석성산)의 보개산성(석성산성)과 그 전방의 할미산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었고 지난 11월 23일에는 할미산성을 답사하여 사진 촬영과 대략적인 길이를 실측했다. (사진1) 1차 현지답사에는 본 문화원 이인영 연구위원과 최희면 문예진흥위원이 함께 했으며 기온은 산행에 적당했으나 날씨가 흐려서 사진촬영이나 먼 곳을 관찰하는데는 다소 불편했다. 답사반은 당일 14시 30분경 문화원을 출발하여 14시 55분경 산성에 도착했으며 15시 05분 부터 성의 동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며 답사와 실측을 시작 약 1시간만에 끝나치고 17시 30분경 마성 정류장을 거쳐 돌아왔다. 실측 결과 성의 크기가 약 700여 미터, 내부면적이 약 40,000m<sup>2</sup> (약 12,000 여평) 정도로

확인되었고 동서의 폭보다 남북의 길이가 더 긴 타원형의 성으로 나타났다.



사진 1. 실측광경 -  
무너진 서쪽벽의 일부이다.



할미산성 부근

할미산성은 포곡면 마성리와 구성면 동백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정확한 지번은 구성면 동백리 32-2 번지이며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에서 용인방향으로 약 4km지점으로 터어기군 참전비 맞은편 산 위에 있다. 성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은 택시나 승용차가 가장 편리하며 정기교통편은 불편하다. 포곡면 마성리에서 서쪽으로, 구성면 동백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나 자연농원 입구인 마성 인터체인지에 있는 표밭는 곳에서 서쪽으로 약 10분 정도 올라가면 손쉽게 갈 수 있다.

행군이 토성을 조사할 때도 느꼈던 바이지만 전문적 연구나 분석을 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답사와 사진촬영 등에 그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최대한의 자료가 되도록 소개하고자 한다.

## 2. 우리 나라의 성

성은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인공적 방호시설을 의미하며 군사적 용도로 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성곽<sup>주1)</sup>의 나라라고 불리웠을 만큼 많은 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되거나 발견되어 있는 전국의 성은 약 1,200 여개를 넘고 있다고 한다.<sup>주2)</sup>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최초

의 성은 위만조선(衛滿朝鮮) 말기 한(漢)이 침략했을 때의 사실(史實)을 통해서이며 이후 여러 기록에 언급되고 있다.<sup>주3)</sup> 삼한시대가 되면 더 많은 성이나 성과 관련된 전쟁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며 삼국시대에 이르면 성의 축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기록과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성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의 성은 산성(山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산이 많고 지형이 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을 쌓은 결과가 아닌가 한다.

산성은 테뢰식 산성과 포곡식(包谷式) 산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테뢰식은 산의 8부 능선 정도를 모자테처럼 휘돌아 쌓는 방식을 말하고 포곡식은 산기슭에서 시작 골짜기와 능선을 넓게 포함해 쌓는 방식을 말하는데 테뢰식이 포곡식보다 먼저 나타난 축조방식이라고 하며 약 4~600 정도의 크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또한 성안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장대(將臺)를 쌓고 지휘소로 삼았으며 평평한 곳에는 병기, 식량, 연료 등을 저장하는 창고와 우물 등이 갖추어져 있고 부성(副城)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축성재료는 자연석이나 인공을 가해

註1) 성곽(城郭)은 ‘城(內城)과 郭(外城)을 구분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성만 쌓는 경우도 많았다.

註2) 1978년 문화재 관리국 조사.

註3) 사기(史記) 조선전에 보이는 기록이며 BC 2세기경에 해당된다.

쌓기 좋게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과 가까운 곳에서 재료를 구하고 있다. 축성방법을 보면 협축법(夾築法)과 내탁법(內托法)이 있는데 협축법은 성벽의 안과 바깥 벽을 모두 수직에 가깝게 쌓은 것을 말하며 내탁법은 바깥은 석축을 이루고 안은 지형을 이용 흙이나 잡석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말하는데 내탁법이 더 많이 이용되었다. 벽면은 물림쌓기 방식으로 아래돌에 비해 1치 3푼 씩 물림쌓아 위보다 아래를 점차 내쌓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15° 경사를 이루게 된다. 성문은 보통 골짜기 속에 설치하여 적으로부터 은폐시키며 방에 유리함을 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산성제도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 산성제도가 크게 발달해 있는 것은 지세의 유리한 활용과 유사시 농경지나 주택을 불살라 적 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미리 준비한 산성에 들어가 무기한 항전하는 고래(古來)의 방어 전술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하겠으며 우리 용인의 성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겠다.

### 3 우리 고장의 성

필자는 이미 용구문화 제 3 호에서 행군이 토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고장의 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성의 분류나 역할은 이미 이야기했

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고장의 성에 대해 다시 말하면 3호에서 소개한 행군이 토성과 퇴미산 토성, 그리고 남사면 아곡리 소재 처인토성과 석성산 위의 보개산성[석성산성], 그리고 본 글에서 이야기하는 할미산성이 있다. 또한 포곡면 신원리 소재 선장산에도 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매통 소재 행군의 토성과 퇴미산 토성은 대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부근지명에 대한 조사와 구전되어 오고 있는 전투 상황에 대한 채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문헌자료 수집에도 노력하고 있다. 처인성은 우리 고장의 역사에 있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몽고의 2차 침입시 우리 용인의 선조들과 김윤후 장군에 의해 적장 살리타이가 사살당하고 몽고의 침략군이 대패한 곳으로 약 425m의 토성이며 고증을 거쳐 복원이 이루어져 있다. 선장산 고성은 그 기록이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보이고 있고 이미 몇 차례 답사했으나 아무 것도 찾지 못했고 가까운 마을에서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김정호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인근 마을이나 우리들이 모르고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는 더 조사를 해야 하겠다.

위와 같이 우리 고장에는 토성이 세 곳, 석성이 두군데 있으며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산성이 3 곳, 평지에 연해 있는 성이 2군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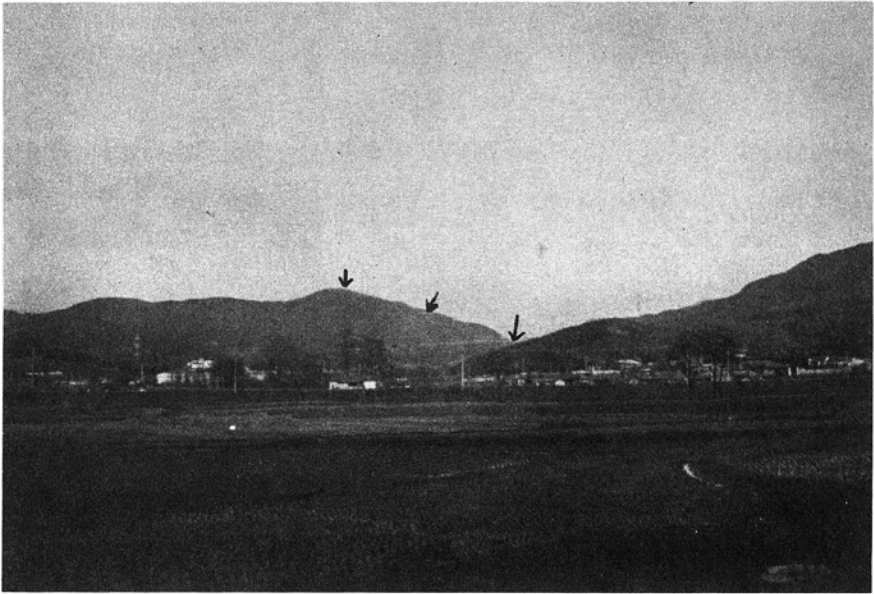


사진 2. 구성면 중리에서 바라본 할미성 -  
가운데 고개가 마성분기점이며 왼쪽 산 위에 할미성의 서쪽 벽이 보인다.

#### 4. 할미산성

할미산성이 최초의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은 병자호란을 당하여 용인전투에서 패했다고 하여 국문을 받게 된 경상감사 심연과 전라감사 이시방의 진술서 중에 할미 산성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는 것이 처음이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확인한바 없다. 주4) 다만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보개산성을 기록하는 가운데 보개산고성 속칭고성(寶盖山古城 俗稱姑城……)이라고 하여

註4) 대동야승 병자호란 관계기사에 보이는 기록으로 연려실기술 병자호란 조에도 할미산성의 명칭은 없으나 같은 내용이 있다.

할미성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 다음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보개산성과 할미산성을 혼동한듯 하며 기록상의 선장산 고성(성)이 할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할미산성은 주민들 사이에 마고선인(麻姑仙人) 일명 “마귀할멈”이 쌓았다고 하기도 하고 옮겨 쌓으려고 했다고 해서 할미성으로 불리우고 있고 한자로는 老姑城으로 쓴다.

할미성은 기능이나 지리적 위치를 기준하면 산성이고 축성재료로 구분하면 석성이 되며 형태상으로는 타원형이며 테포식 산성이다.

영동고속도로변 마성 인터체인지 고개를 오르면 오른쪽으로 터어키군 참전기념비가 나타난다. 기념비 건너 북쪽으로 야트막하게 산이 보이며 크고 작은 나무들이 듽성듬성 보인다. 사진2) 또 용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 서울로 가면 유방리의 버드실과 마성정유장을 지나 성산의 동쪽허리를 타고 완만하게 오르막길을 오르면 오른쪽으로 포곡면 일대와 자연농원 그리고 멀리 모현방면과 태화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고개 오른쪽으로 용인 자연농원 진입로와 마성 인터체인지

톨게이트가 그 위로 산등성이가 보이고 정상 못미처에 가로 지른 돌무더기가 보되는데 바로 할미성의 동쪽벽이 되며, 평상시에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확인하기가 쉽지만,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질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진3) 마성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자연농원 진입로로 나가기 직전길 왼쪽으로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으로 소로가 있고, 올라가면 곧바로 성벽이 나타나게 되며 약 10분 정도가 걸린다.



사진 3. 마성 인터체인지에서 본 할미성 -  
위의 화살표 부분이 성의 남쪽과 동쪽이다.



사진 4. 정상에서 본 서쪽 방면-

가운데 뾰른 길은 영동고속도로이고 신갈, 수원 방면이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

성은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나 지형에 따라 굴곡이 있으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축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안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성의 북쪽벽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성벽이 위치하는 산기슭의 경사는 약 60~70° 정도이나 서쪽의 경우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산의 경사와 성벽의 기울기가 심하다. 정상에 오르면 서쪽으로는 구성, 신갈, 멀리 수원 방면까지 한눈에 들어오며(사진4)

동쪽으로는 포곡면 일대와 내사면 일대, 그리고 북쪽으로는 산줄기가 발 밑으로 야트막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남쪽만 성산이 높으므로 해서 막혀 있으며, 오히려 성산에서 보면 성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성벽은 돌을 이용해서 축조되었으며 성의 둘레에는 무너진 석재가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돌은 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표면이 거칠고 약하게 보이는 암석이며 차돌이나 차돌맥이 섞인 석재도 보이며 냇가의 돌처럼 매끈한 구석은 없다.

돌의 모양은 길쭉하고 납작한 것이 대부분이며 크기는 보통 큰 것이 길이가 90~100cm 폭이 45~50cm, 두께가 10~20cm 안팎이고 그보다 크기가 큰 것은 별로 없으나 작아도 두께는 대부분 일정하며, 분명 인공을 가해 쌓기 좋게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으나 남아있는 부분의 단면이나 벽면을 보면 네모로 반듯반듯한 인공이 가해진 돌을 마치 벽돌 쌓듯이 물려가면서 견고하게 쌓았고 벽면이 안정감을 갖도록 위보다 아래를 더 바깥쪽으로 내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가장 완전하게 남아

있는 성벽의 일부를 보면 성벽의 기울기가 아래로 갈수록 수직에 가깝고 위로 갈수록 경사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5, 6) 벽면의 안쪽은 크고 작은 잡석으로 채워서 벽면을 튼튼하게 보강했으며 성벽 안쪽을 쌓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진 7, 8) 정확한 높이를 구하지는 못했다. 현재 남아있는 대략적인 높이를 보면 성벽의 폭이 약 4~5m 정도 높이가 5~7 m 정도이며 무너진 돌이 깔려있는 폭을 합하면 약 10여m의 폭이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성벽의 안쪽에는 마치 길처럼 생긴 평탄지가 성벽을 따라 휘



사진 5. 서쪽 성벽의 외벽 -

성벽의 윗 부분은 훼손되었으나 가장 완전하게 축성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사진 6. 동쪽 성벽의 외벽-  
무너진 성벽의 밀부분이다.

돌아 있는데, 이는 성벽을 따라 높이 쌓고 성안을 평평하게 고를 때 생긴 길이 아닌가 한다. 폭이 약 4~5m 정도로 북쪽과 서쪽의 일부를 제외하고 남쪽의 낮은 지역과 벽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성벽의 북쪽 정상 부근에는 동서를 가로질러 돌들이 놓여 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성의 내부를 구분한 필요에 의해 놓여졌거나 본래 성의 남쪽벽의 자리였으나 확장 개축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성안의 북쪽 가장 높은 봉에는 묘지가 1기 있으며 중간에도 2~3기의 오래된 무덤이 있다. 또한, 성벽과 무너져 있는 돌무더기에는 나무가 전혀 없이 멀리서 보



사진 7. 서쪽 외벽의 단면-  
성벽 안쪽을 큰 돌과 잡석으로 다져 보강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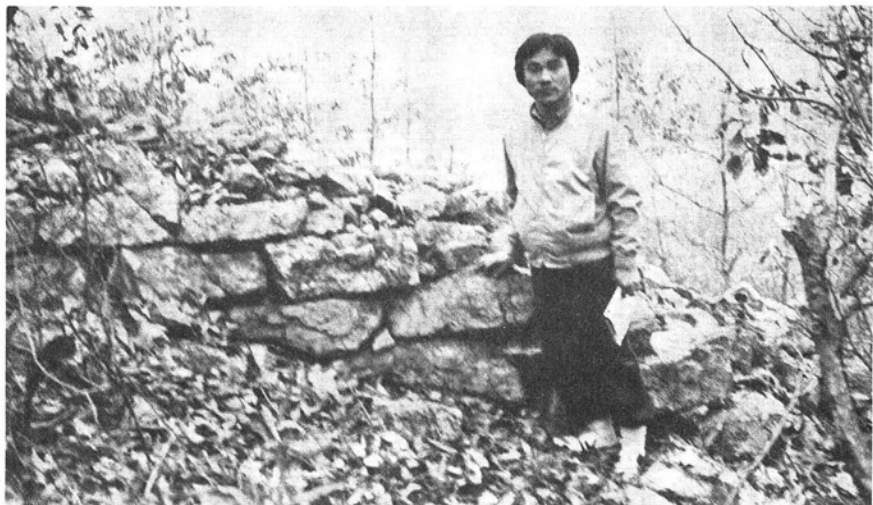


사진 8. 동쪽 성벽의 내부  
윗부분은 훼손되어 없어졌다.

면 띠처럼 보이지만 성안과 바깥에는 크고 작은 소나무, 참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 5. 맺는말

이상에서 할미산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먼저번 행군이 토성을 썼을 때에도 느꼈던 바이지만 기록의 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이 커다란 애로로 생각됐고 무엇보다 본인의 단견이 가장 큰 애로였음을 실토히면서 조사결과에 대하여 작은 결론을 맺고자 한다.

먼저 본문 가운데서도 언급했지만 할미성은 산성으로 석성이며 태피식이라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우리 고장의 석성 가운데에선 비록 무너져 있으나 가장 확실한 모양의 석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가까운 석성산의 보개산성이 석축이 거의 다무너지고 극히 일부만 남아 대략적인 형태만 짐작할 수 있는것과 비교하면 훨씬 양호한 상태의 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할미성에 관한 단편적 사실들 가운데 몇 가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축성 연대이다. 용인군청 발행 「향토문화와 전통」이나 내무부 편찬 「도향지」 등 기왕의 기록에는 고려 초기에 축성되었다고 씌여있으나 그보다는 삼국시대의 축성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것은 우리 용인의 지리적 중요성이 통일되어 있던 고려시대보다는 분열 대립되어 있던 삼국시대에 국경지대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 되어있던 지역이기 때문이며 석성산이나 북쪽에 있는 할미산 정상에 올라 사방을 보면 한눈에 시야가 탁트임을 느낄 수 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내려오는 구성면 마북리 일대와 광주에서 용인 안성으로 통하는 용인 광주간 도로가 통과하는 포곡, 모현방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길은 한강 유역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했을 것이며 백제의 남진이나 고구려의 남하 그리고 신라의 북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sup>註5)</sup> 또 앞의 설명 중 성벽의 축성방법, 성문의 위치, 형태나 크기 축성 재료 등이 삼국시대의 축성일 가능성이 크게 해주고 있다.

다음은 할미성의 기능상의 문제이다. 보개산성과의 거리나 위치 등으로 미루어보면 북쪽으로부터의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성이 틀림없고 할미성이 석성산보다 낮고 더우기 할성의 지형이 북쪽보다 남쪽이 낮아 석성산에서 전부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주성의 역할보다는 석성산의 부성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상호 대치적인 성으로도 인식될 수 있고 석성산성이 석성임에도 무너진 석

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가까운 곳에 있는 할미성으로 옮겨 쌓아 석성산의 기능이 옮겨갔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구성면 마북리 일대가 옛 용인의 소재지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할미성이 비상시 웅거하는 장소로서 이용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는 계속적인 연구를 요하는 문제이다.

다음은 앞에서도 인용했던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기록에 관한 의문이다. 김정호는 분명히 보개산성과 할미성을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권4 용인조를 보면(성지) 보개산고성 속칭고성지형험요…주2529척(城池)寶盖山城 俗稱姑城 地形險要…周二五三九尺)이라 하여 분명 보개산성을 지칭하며 동국여지승람 이래의 길이를 그대로 실고 있으나 속칭은 할미성(姑城)이라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는 김정호가 보개산성과 할미산성을 혼동하며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註6)</sup> 또 선장산 고성 유유지(禪長山古城 有遺址)다 하여 선장산에도 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수차에 걸친 계속적인 답사에서도 찾지 못했다. 선장

註5) 용인의 옛 이름이 백제시대에는 멀오, 고구려 점령시에는 용구, 신라 통일 후에는 거서라고 불렀던 것도 우리 고장이 삼국의 각축장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註6) 보개산성의 길이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942 보(步)가 처음이고 동국여지승람에는 2529 척(尺)이라 되어있다. 이후 여지도서, 읍지, 대동지지 등은 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산고성에 관한 기록은 위의 여덟 글자가 유일한데 주민의 증언이나 현지 답사 결과로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주 7)

용인에 있는 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보개산 석성에 관한 기록인데 그것만으로는 당시의 성벽의 상태를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무너진 상태가 기록된지 500여년이 지난 지금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비록 토성인지 석성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무너져 있다 해도 기록에 나타난지 120년 정도 밖에 안된 선장산고성이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김정호가 할미성을 선장산성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선장산 일대에 대한 계속적인 답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은 명칭에 관한 문제이다. 할미성은 마고 할미가 쌓았다 하는 전설에서 붙은 명칭이며 먼저 이야기했던 병자호란 때의 기록을 보아도 옛부터 할미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한자로는 고성(姑城) 또는 노고성(老姑城)이라고 쓰는데 노고란 할미란 뜻의 한자 표기이다. 또 노고란 말은 도교와 관계있는 듯한 단어이며 군대에 노고산, 노고봉 등이 있고 지리산, 노고단 등의 명칭으로 미루어 우리 용인에 있는 특정지역만의 명칭은 아닌 것 같다. 전설과 연계시켜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할미산에 관한 전설은 내고장 옛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며 앞으로 더욱 상세한 조사와 보존, 나아가 순례 코스 등으로 개발하여 호국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가장 완벽하게 남아 축성 당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벽의 일부에 대한 보존대책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註7) 동국여지 승람은 1481년(성종12) 여지승람으로 완성되었고 이를 정정하여 1486(성종17) 동국여지승람으로 발간했다. 1499년(연산군5) 개수하여 1530년(중종25)에 신증동국여지 승람으로 간행 하였다.

대동지지는 고산자 김정호의 저작으로 1864(고종1)에 간행된 지리서이다.



## '86년도 문화원 특색사업계획

'86년 6월 11일 단오일을 맞아 문화원 주최로 단오제를 실시 예정

### ◆ 단오제 내역

○ 씨름, 그네, 농악놀이 경연대회

○ 난장 개설

○ 모현중학교 취타대 특별연주

### 원 고 모 집

본 문화원에서 계간지로 발간되는 「용구문화」에 게재할 원고를 다  
음 요령에 의거 군민 여러분의 원고를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주옥같  
은 글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놀이, 문화재 등 발굴기(원고매수 자유)
- 애향심 고취에 관한 산문(원고12매)
-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논문
- 각 기관 및 학교, 일반사회단체 등의 동정소식(원고매수 자유)
- 수필, 시, 콩트 등

보내주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전화>> 2-2033번

## 유 유 (柳綏) 초상

유 유는 반정공신 유순정의 9대손이며, 호는 성곡(聖谷), 자는 여회(汝懷)이다. 숙종 4년(1678) 정월 초 7일 해시에 출생하고 경종원년(1721)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의 관위에 올랐다. 이 초상은 全身交椅의 좌안칠분면상이다. 전신안배와 취세에 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운 유연성이 나타난다. 조사모(烏紗帽)의 형태는 상당히 높아지고 단령위로 나타나는 흉배의 문양, 공수(拱手)의 취세등에서는 정형화된 조선조 초상의 화양이 존중 되었음이 엿보이면서도 여타의 공신상(功臣像) 보다는 좀더 분방하게 그리고 전신포치의 완곡한 선처리등에서 작가의 화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이 초상은 49세때 동래(東來)에서 첨사 진재해(秦再奚)가 그렸다는 명문이 있어 작자와 연대가 명확하고, 초상에 작가의 이름을 명시한 예 등이 조선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것으로 여겨진다.

초상 좌측에는 유 자신의 육필로 시문을 묵서하고 말미에 62세 기미정월칠일 자서(自書)라고 쓴 후 낙관을 찍었다. 이날은 유 자신의 진갑날이 되는데 자신의 초상을 앞에 놓고 일필휘지 목적을 전가한 풍류와 기개가 보는 이의 가슴에 와닿는 귀중본임이 틀림없다.

(李仁寧)

# 편집후기

- 다사 다난했던 을축년을 보내면서 용구문화 제 5 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85년도에 「용구문화」에 게재할 육고를 투고하여 주신 향토문화 연구위원과 문예 진흥위원, 그리고 그밖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병인년에도 지역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용구문화를 위해 좋은 글을 보다 많이 투고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 드립니다.
- 이번 제 5 호에는 「정양화」 향토문화 연구위원의 「할미성」을 특집으로 엮었으며 「조 윤원」 보라국민학교장의 「사은정 탐방기」 또한 새롭게 엮어보았다. 아울러 경기도 민속 경연대회 민요부문에 입선한 「타맥놀이」를 소개하였다.
- 지난 해에는 원고 청탁을 위해 동분서주 하다보니 책자가 졸작이라 생각되나, 나름대로 애독자가 점차 늘어, 새해에는 발행 부수를 늘려야 하는 실정. 문화원은 즐거운 비명!
- 병인 새해에도 「용구문화」를 더욱 애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엮을것을 약속드립니다.
-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



---

---

## 용 구 문 화 제 5 호

1985년 12월 25일 인쇄

198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박 민 응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 화 : 274-6155

---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발

전

용인군 약사회

회 부 회 장

총무위원장  
약국위원장  
여약사위원장

이 김 이 임 김 오 최

경 명 지 광 진 필 춘

길 군 순 수 배 신 희

